

# “당신의 용기 위에 민주주의가 세워졌습니다”

## 고 정동년 선생 4주기 추모식

광주 운동동 국립5·18민주묘지·유족·시민 등 참여  
고인 생전 모습 재현 시 상영에 추모객들 눈물 흘려

“광주가 광주다울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바로 쉰다.”

5·18민주화운동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한 고(故) 정동년 선생을 기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9일 오전 광주 북구 운동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고 정동년 이사장의 4주기 추모식이 엄수됐다.

이날 추모식은 유족과 각계각층의 인사,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민중의례, 고인이 걸어온 길을 소개하는 연보 낭독, 추모사, 추모가, 유족대표 인사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묘지 참배 및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인사말에 나선 전홍준 정동년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지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의 호 ‘재송(齎松)’처럼 살다 가신 고 정동년 선생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담아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다”며 “민주주의 후한을 다시 경험하고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발걸음인 사전

투표 첫날 추모의 자리가 마련돼 뜻깊다. 민주화의 상징인 정 선생님의 유지를 받들어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대표 5·18기념재단 이사장, 강기정 광주시장, 양부남 국회의원의 추모사가 진행됐다.

이후 유형민 광주성악가협회장이 오월영령을 추모하는 추모가를 불렀다.

특히 이날 고인의 생전 모습을 재현해 감사 인사를 전한 시영상이 상영되자 일부 추모객들은 고개를 숙인 채 정 선생에 대한 그리움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였다.

1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추모식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정동년 선생 묘비에 헌화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고 정동년 이사장은 1980년 신군부에 불합쳐 사형선고를 받고 풀려난 뒤 1990년대 전두환의 법적 처벌을 이끌어낸 인물이다.



평생을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오월 사형수 '고 정동년 5·18년제재단 이사장 4주기 추모식'이 지난 29일 오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 제2묘역에서 열린 가운데 부인인 이명자 전 오월어머니집 관장과 유족들이 헌화·참배하고 있다.

특히 5·18 당시 내란수괴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정 이사장은 5·18 관련자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수형 생활을 했고, 특

사로 석방된 후에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에 힘썼다. 지난 2022년 5월 29일 심장마비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었다.

운동 제46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5월의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는 이 같은 정 이사장의 활동을 기리며 5·18민주화

글·사진=최기남 기자 bluesky@

## 광역-기초 협력 기반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 본격화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은영)은 최근 목포미식문화갤러리 해관1897에서 '2026 행복전남 문화지소' 참여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체계를 본격화했다.

이번 협약식은 '2026 행복전남 문화지소' 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간 문화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는 신규 참여기관인 목포문화재단, 해남문화관광재단과 함께, 연속 참여기관인 나주문화재단, 담양군문화재단, 순천문화재단, 화순군문화재단 등 총 6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신규 참여기관 대상 문화지소 현안 전달과 함께 2년 연속 참여기관에 대한 인증 수여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 협약서 서명과 교환을 통해 지역 기반 문화협력 체계를 공식화하고 상호 협력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전남문화재단은 이번 협약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6~2030)'에서 제시한 문화지소 기반 및 거버넌스 재정립, 기반이 튼튼한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균형성장을 위한 지역문화 공간 전략 재구축 등의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문화 거버넌스 재구축을 통한 협력적 성과 창출'과 '사람을 키우는 지역문화' 정책 기조를 광역-기초 간 협력 구조를 통해 현장에서 실현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또한 이번 협약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정부의 '문화도시 3.0' 정책 방향과도 연계된다. 전남문화재단은 문화지소 사업을 단순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넘어 지역 생활권 중심 문화환경 조성과 지역 정주여건 개선, 지역문화 기반의 지속



전남문화재단은 최근 목포미식문화갤러리 해관1897에서 '2026 행복전남 문화지소' 참여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체계를 본격화했다.

### 전남문화재단, '행복전남 문화지소' 협약 체결 목포·해남·나주·담양·순천·화순 등 6곳 참여

가능성 성장 전략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순천문화재단은 지난해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문화도시 사업과 행복전남 문화지소를 연계 운영하고 있다. 지역맞춤형 협약방식을 기반으로 문화도시 사업비와 문화지소 사업을 함께 추진하며 지역 문화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문화도시 3.0' 정책 방향과도 맞물려 지역 중심 문화정책의 새로운 협력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김은영 대표이사는 "행복전남 문화지소는 지역의 문화자원과 사람, 공간을 연결하는 생활권 기반 문화플랫폼"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주체 간 협력 거버넌스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문화가 지역소멸 대응과 균형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 광주시, '세계 금연의 날' 보건복지부 장관상

맞춤형 금연 사업-온-오프라인 홍보 성과

광주시는 최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39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공동 주최한 기념식은 '화려한 유혹의 실체: 니코틴·담배 중독에 맞서자'를 주제로 진행됐다.

시는 그동안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연사업과 맞춤형 금연환경 조성 정책을 적극 펼쳤다.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안내표지를 정비했으며, 교육시설 주변 버스정류소의 금연환경 조성에도 앞장섰다.

시내버스 광고와 포스터 배포 등 시민 생활에 밀착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 금연캠페인을 지속 운영했다. 아울러 보건소와 금연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금연 관계기관과 견고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실효성 있는 금연 정책을 추진했다.



광주시는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39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배강숙 광주시 건강위생과장은 "이번 수상은 지역사회와 관계기관이 시민 건강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 이뤄낸 소중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금연환경을 더욱 공고히 조성하고, 금연지원서비스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 광산구, 의료·요양 통합돌봄 안착 집중

돌봄 대상자 발굴·서비스 연계 점검

광주 광산구가 새롭게 시행된 의료·요양 통합돌봄 제도의 안정적인 지역 안착을 위해 행정현장을 찾아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광산구는 지난달 7~22일 21개 동을 돌며 '의료·요양 통합돌봄 등 순회 업무연찬 및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순회는 지난 3월 27일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현장 실무자들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긴밀한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산구 돌봄정책팀과 돌봄지원팀 전담 실무자들이 각 동을 방문해 돌봄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연계 과정을 함께 살폈다.

특히, 돌봄 필요도가 높은 주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현장 대응 방안과 주민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 체계를 중점적으로 다뤄 총총한 지역 돌봄망 구축에 힘을 모았다.

또한 자체 제작한 안내서를 활용해 행복이음 시스템 입력 지침서 등을 공유하며 실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업무 지



원도 함께 진행했다.

원도 함께 진행했다.

광산구는 교육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통합지원 정기회의와 연계한 현장 중심 지원 체계를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제도가 주민들의 삶 속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현장과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적극 발굴하고 광산구만의 돌봄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정호 기자 jhn4415@gwangnam.co.kr

## 전남도, 양돈농장 ASF 재유입 차단 '총력'

이동제한 해제 이후에도 예찰 지속·취약농가 집중 관리

올해 초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잇따라 발생했던 전남지역에서 방역당국이 재유입 차단을 위한 정밀검사와 예찰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동제한이 해제된 이후에도 양돈농장과 축산시설에 대한 감시망을 유지하며 추가 발생 차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ASF의 재유입을 막고 조기 발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체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임상예찰과 정밀검사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에서는 지난 1월 영광군을 시작으로 나주, 무안, 함평 등 4개 시·군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는 발생농장 방역지역과 역학 관련 농장, 도축장,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예찰과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발생 시·군에 설정된 이동제한은 지난 4월 22일 모두 해제됐다.



시험소는 이동제한 해제 이후에도 감시를 늦추지 않고 있다. 전체 양돈농장에 대한 상시 예찰을 이어가는 한편 취약농가와 밀접사육단지를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축산시설 환경과 외국인 근로자 숙소 내 물품, 도축장 혈액탱크 등에 대한 정밀 검사도 병행하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